

이상(李箱)의 시 작품에 구사되는 프랑스어와 탈 지방성

이 병 수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근대한국 문학의 전위인 이상(李箱)의 시작품에 구사되는 프랑스어와 탈 지방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상의 시편들 속에 쓰인 기호와 외래어는 한글로는 표현이 어려운 물리학, 건축학, 수학, 기하학, 이국의 문명과 같은 초감각적인 이미지들을 그려내고, 의미생성과 확장을 불러오는 파생의 시어로 작용한다. 이상의 시작품에서 프랑스어는 알파벳 철자와 한글식의 표기로 나누어지고, 문장들은 고딕 적이며, 병렬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프랑스어 단어들은 “□, △, ▽” 등의 기호들과 조화를 이루어 상형적인 이미지로 기술된다. 문법의 규범을 이탈한 문장들은 해체와 재조합을 불러오고, 이때 프랑스어는 한글을 대체하고, 모국어가 갖는 한계를 초극하여 이국의 과학문명과 사상, 예술을 차용하는 포스트모던의 시어로 활용된다. 나아가 “ESQUISSE” 등의 프랑스어는 시인 자신의 열등의식을 초월하고, 자유와 상상력, 현대의 예술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전위적인 시어로서, “향토”(鄕土)의 조선 문단에 세계의 신경향을 이식하여 성숙시켜 놓은 탈 지방의 시어로 나타난다.

주제어 : 이상, 탈 지방성, 향토, 새로운 정신, 프랑스어, 신경향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근대한국 문학의 전위인 이상(Lee Sang 1910-1937)의 시작품에 구사되는 프랑스어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가 불러오는 탈 지방성과 세계성에 대해 규명해보기로 한다. 조선

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접어드는 한일합병의 해에 태어나 이국의 땅 일본 동경에서 삶을 마감하기까지, 시인은 지엽적인 한국문단을 초극하는 세계지향의 예술정신을 보여주었다. “펜은 나의 최후의 칼이다”¹⁾라고 외치며, 억압의 시대에 탈 조선을 지향하던 이상은 “왕양(汪洋)한 자유”²⁾의 삶과 문학을 남겨놓았다. 서구의 다다(Dada)나 쉬르레알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 받아온³⁾ 이상의 작품은 한글이나 일본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비롯한 서양의 외래어와 수학적 부호, 기하학적 도형 등의 비시어적인 기호들이 혼재한다.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발표된 「鳥瞰圖」를 비롯한 이상의 시편들은 실험적인 시어들과 반문법적인 표현으로 한국시문학사에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스캔들로 정의되어 왔다. 1932년 시인은 「建築無限六面體」라는 표제 하에, 프랑스어 제목인 “AU MAGASIN DE NOUVEAUTES” 등 7편의 시를 발표한다.⁴⁾ 이 시편들은 작품의 제목과 문장 속에 외래어와 비 시어들이 혼용되는 몽타지 기법을 보여준다. 시편들 속에 쓰인 기호와 외래어는 한글로는 표현이 어려운 물리학, 건축학, 수학, 기하학과 같은 초감각적인 이미지들을 그리기 위한 시어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상의 시작품들에서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들은 모국어가 갖는 지방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토”(鄕土)적인⁵⁾ 범주를 벗어나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지향하는 아방가르드의 시어로 활용된다.

이상(李箱)은 경성(京城), 오늘의 서울에서 태어나 식민지 시대를 살았다. 시인은 모국어인 한글과 함께 당대의 교육언어였던 한자와 일본어로 자유로이 작품을 썼다. 시인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비롯한 이국의 언어들을 작품

1) 이상, 『이상 소설 전집』, 권영민 편집, 서울, 민음사, 2013, p.397.

2) *Ibid.*, p.141.

3) 고은, 『이상평전』, 서울, 향연사, 2003, pp.122-123 참조. “이상의 예술충동은 19세기 서구문학과 세기말 예술의 매혹에 기울어진 것으로써, 다다운동과 쉬르레알리즘 등이 가지고 있는 퇴폐적 인터내셔널리즘의 저주받은 축제”. 고은은 李箱을 최초의 세기말 예술가로 평가하며 모더니스트적인 경향을 강조.

4) 이상, 『李箱문학전집 1-시』,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167. 이후 이상(李箱)시 인용은 본문에 (CP. 167) 형식으로 표기.

5) 이상, 『李箱문학전집 3-수필』, 김윤식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249. 이상은 조선사회를 향토에 비유하며 조선의 문단을 서구의 작가들과 대비시켜 기술. “그러나 이 鄕土는 鄕土이기 때문인 理由만으로 해서 草根木皮로 목숨을 잇는 너 무도 끈적끈적히 많은 성가신 食口를 가졌다.”

속에 빈번히 구사하고 있다. 특히, 그의 시, 소설, 수필에 쓰이는 프랑스어 어휘는 뜻과 표기에서 한국의 근대문학에 한글을 대체한 파격의 시어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시인이 프랑스어로 구현하고자 했던 문학적, 예술적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시인은 1935년 매일신보에 「山村餘情-成川紀行中の 몇節」이라는 편지형식의 수필을 게재한다. 이 글은 평안남도 성천(成川)에서 여름 한 달을 보내며 시인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묘사한 내용이 담고 있다. 그리고 미발표 창작 노트에 일본(日文)으로 쓴 “第一の放浪”(제1의 방랑)이 훗날 발굴되어 소개된다.⁶⁾ 시인은 성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서양의 최신 모더니즘 예술을 다룬 고급 문예지를 읽는 도회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르뽕>>을 꺼낸다. 아폴리네르가 즐겨 쓰는 테에마 小説이다. <暗殺 당한 詩人> 나는 神秘的인 古代의 냄새를 풍기는 主人公에게서 ‘벵게이’를 聯想한다. 그러나 그것은 詩人이기 때문에, 浪漫主義者이기 때문에. 저 벵게이와 같이-결코-華麗하지는 못 할 것이다.”⁷⁾ 글 속에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차가운 에나멜의 끝이 뾰족한 구두”를 신고, “세르뽕”과 “아폴리네르”, “벵게이”를 찾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⁸⁾ 시인은 성천이라는 시골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경성을 넘어, 일본의 동경과 프랑스의 파리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⁹⁾ 시인이 잡지에서 접하며 갖게 되는 파리를 비롯한 서구의 도시문명과 전위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현대예술의 신경향에 대한 동경은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공간을 벗어나 자유로이 세계 속을 거니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인이 견지했던 모던한 서구의 예술과 문명에 대한 동경의 심리에 견주어 볼 때, 이상의 시 작품에 구사되는

6) *Ibid.*, p.176 참조.

7) *Ibid.*, p.158.

8) 이상, 『李箱문학전집 3-수필』, 김윤식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p.157-158.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니된다. 나 자신을 暗殺하고은 나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조차 禁止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상은 아폴리네르의 수필 *Le poète assassiné*(1916)에서 살해된 시인의 이미지를 <暗殺 당한 詩人>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아폴리네르는 “샘을 곁에 두고 목말라 죽어가는” 크로니아망탈과 “사는 것이 행복한” 가짜시인 파포나(*la popoite Paponat*)를 그리며 살해된 시인의 이미지를 기술. 황현산, 『얼굴 없는 희망』,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1990, p.192 참조.

9)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서울, 나무이야기, 2009, p.163 참조. “이상은 김기림과 함께 프랑스로 가겠다는 꿈을 안고 일본 땅에 발을 디딘 것이다.”

프랑스어는 일회적인 유희성을 넘어 근대조선이라는 지방에 세계의 신경향을 이식시키고 성숙시켜 놓은 자생의 시어로 나타난다.

그러한 이상의 시편들에서 모국어를 대체하여 초감각적인 사물을 그리는 프랑스어 기표의 특성은 무엇인가? 다른 여러 시어와의 융화에서 파생되는 프랑스어의 의미 확장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시인이 견지했던 서구문명에 대한 동경의 심리적 기저와 프랑스어의 역학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기본으로, 본 연구는 향토적인 지방을 넘어 세계지향의 시어로 적용되는 이상 시의 프랑스어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삼는다.

2. 초감각의 시어

1935년 이상은 매일신보에 “現代美術의 搖籃”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예술가들이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를 제시한다. 그것은 “새로운 정신”으로 해석되는 “에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이다. 시인이 강조하는 에스프리 누보는 무엇일까? “예술은 자꾸만 예술 아닌 것으로 傾向한다. 그것은 금일의 예술이 금일의 예술이기 위하여는 차라리 昨日의 예술인 데서만 예술일 수 있는 예술에는 告別하는 까닭이다. 종래의 예술을 척도 하던 시민은 이것을 예술의 자기 解消性으로 억측한다. 파리에서 오는 한 장의 複製版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급행열차와 얼마나 힘든 경주를 하고 있는가를 자각시킨다. 자칫하면 우리는 現代라는 기관차에서 천 리 뒤떨어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공포 때문에 위협 당한다. 그것은 명량한 암흑시대다. 에스프리 누보! 그것은 두 번째의 ‘르네상스’를 胚胎하는 정신의 위기다.”¹⁰⁾ 글 속에서 시인이 중요하게 주목하는 점은 “현대라는 기관차”에 비유되는 서구예술의 “신경향”이다. 시인은 조선의 문단이 처해 있던 고루함과 협소함에서 벗어나 서구의 예술가들이 추구하던 새로운 예술정신, 즉 “에스프리 누보”를 직시하는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이 말하는 “에스프리 누보”는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가 주창하고, 앙드레 브르통을 위시한

10) 이상, 『李箱문학전집 3-수필』, 김윤식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265.

다다와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받아들인 전위적인 예술운동을 강조한 표어이다.¹¹⁾ 프랑스의 다다그룹이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제기한 전위예술은 모든 기존의 것들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시어와 표현 기법을 무시하고, 이전의 예술 재료와 고전적인 미학의 가치에 반기를 든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과학적 탐구와 실험정신을 현대시의 중요한 창작의 원리로 받아들여 신비감이나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시편들은 정형화된 시어를 이탈하고, 기호나 회화의 재료들을 이용하여 정신적 착란과 같은 무의식의 세계를 이미지화 하고 있다. 이상(李箱)은 자신이 구독하던 잡지 「세르팡」 등에서 프랑스의 다다그룹과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내세웠던 “에스프리 누보”를 읽고 조선 문단의 “정신적 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유추된다.¹²⁾ 이상은 잡지에서 아폴리네르를 위시한 서구의 시인과 예술가들의 탈근대적인 활동을 접하며, 그들이 제시한 “에스프리 누보”를 자신의 예술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상(李箱)의 시편들이 보여주는 실험적인 시적 재료와 표현기법은 아폴리네르가 말하는 새로운 예술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자각의 소산인 것이다.¹³⁾

아울러 시인은 “파리에서 오는 한 장의 복제판”에서 시가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길과 표현기법의 단초를 얻은 것이다. 잡지에 실려 있던 그 복제판에는 프랑스 현대예술의 신경향, 즉 전위 예술가들의 그림과 시가 소개되고 있었다. 그 예로 이상은 아폴리네르가 시도한 상형적 이미지를 불러오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ie)나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선보인 자동기술법(l'écriture automatique) 등과 같은 파격적인 시어와 표현기법을 응용했

11) 아폴리네르는 1917년 시 전문지 「파리의 저녁 시간들」(*Les soirées de Paris*)에 “L'esprit nouveau”(새로운 정신)라는 제목으로 현대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

12) 「세르팡」은 동경 제일서적에서 간행한 일본의 문화잡지. 예술 중심의 최신 해외 문화기사를 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짐. “세르팡”은 프랑스어 “serpent”을 응용한 것으로 보임.

13)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역락, 2006, p.382.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여 환상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전위 시인들을 접하면서 이상 문학은 전환을 이룬다. 신범순은 성천여행을 이상시의 전환점으로 설명. “그의 문학적 여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성천여행에서 그의 글쓰기는 심연의 깊이와 수직적인 높이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도를 보여주었다. 아마도 이것을 우리는 이상의 상상 세계 속에 뿌리박고 자라난 우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우주적 총체성을 상상력 속에서 작동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다.¹⁴⁾ 그리고 시인이 복제판에서 읽은 프랑스를 위시한 서구예술의 신경향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비시어적인 기호와 외래어의 구사로 나타난다. 특히, 파리를 비롯한 서구의 도시문명과 예술작품이 실려 있는 잡지를 보며 이상이 차용하게 되는 프랑스어 어휘는 전위적인 서구예술의 신경향을 한국문단에 구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는 모국어인 한글로는 살릴 수 없는 초감각적인 사물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로 응용된다. 김윤식에 따르면, “모국어란 말과 사물의 관계가 너무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상식적 세계의 표현에 알맞으나 새로운 것이나 초감각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속수 무책이다. 창작에 있어서의 말과의 고투, 과학자의 신조어, 수학이 사용하는 수식 등이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¹⁵⁾ 즉,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와 기호는 이국의 문물이나 상식 밖의 상상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중요한 시어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초감각적인 사물을 그리는 프랑스어의 기표와 기의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해보자.

△은 나의 AMOUREUSES이다.(CP.103)

□ 나의이름.

△ 나의아내의이름(이미오래된過去에있어서의나의 AMOUREUSE는 이와같이도聰明하리라)(CP.164)

14) 아폴리네르가 창안한 칼리그램 「Calligrammes」(1918), 즉 상형시는 활자의 배합과 배열로 그림시를 구성. 그가 선보인 환상적인 표현기법은 브르통(A. Breton)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 시인들에게 계승. 졸고, 「아폴리네르, 폴 엘뤼아르, 이상 시의 상형적 시어 비교분석」, 『비교문화연구』 제45집, 2016 참조.

15) 김윤식, 『이상의 글쓰기론』, 서울, 역락, 2010, pp.185-186.

고은, 『이상평전』, 서울, 향연사, 2003, pp.279-280 참조. 고은은 이상의 모더니티는 탈영역의 언어, 즉 한글의 영역을 벗어난 탈 모국어에 있음을 강조. “이상은 그가 아무리 무관심하러 해도 결국 그 자신의 굴레가 된 국어와 그의 재능, 감각에 익숙해진 일본어 사이에서 전형적인 식민지 지식인이 기능적 파산을 만나게 되는 이중성의 유희에 의존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 탈영역의 언어는 그러나 그 두 가지 언어 가운데서 어느 것에도 그의 충실한 자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를 그의 모더니티가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저기가저기지』 『나』 『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나. 『너』 『너구나』

『너지』 『너다』 『아니다 너로구나』(CP.30)

POUDRE VERTUEUSE가複製된것과함께가득채워져있다. (...)

여자는꽃노래와같은ADIEU를地圖의에레베에순에다告하고 NO.1-500의
어느寺利인지향하여걸음을재촉하는 것이다.(CP.136)

BOITEUX · BOITEUSE(CP.110)

憂愁는DICTIONNAIRE와같이純白하다. (...) 矮小한ORGANE을愛撫하면서
비인페이지를넘기는마음은平和로운文弱이다.(CP.123)

이러구러漢字COMBINATION을忘却하였던若干小量の腦臟에서는雪
糖과같이清廉한異國 情調로하여 (...) (CP.123)

AU MAGASIN DE NOUVEAUTES (...)

거세된洋襪(그女人의이름은워어즈였다)

마르세이유의봄을解纜한코티의香水의마지한東洋의가을

屋上庭園.猿猴를흉내내고있는마드무아젤(CP.167)

聖제바스티앙과같이아름다운동생 · 로오자룩셈블크의木像을닮은막내
누이(CP.223)

이상의 시편들에서 모국어 대체의 프랑스어는 한글이나 한자, 기호적인
시어들과 용해된다. 프랑스어는 「三次角設計圖 삼차각설계도」(1931), 「建
築無限六面角體 건축무한육면각체」(1932), 「鳥瞰圖 오감도」(1934) 등 이
상의 주요 시편들에서 이국의 도시들과 건축, 시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서
구적 인물과 모던한 이미지들을 그리는 초감각의 시어로 응용된다. 그리고
초감각적인 사물을 그리는 프랑스어는 시청각적으로 독자에게 이국의 언어
가 갖는 낯성을 불러오고, 뜻을 숨기고 있는 암호화된 문자처럼 읽혀진다.
예문들은 두 가지 형태의 프랑스어를 보여준다. 하나는 프랑스어 원래의 철

자로 쓰인 단어들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식으로 표기된 형태이다.

먼저, 프랑스어의 알파벳 철자로 쓰인 단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프랑스어 단어들은 고딕체의 대문자 표기를 보여준다. 프랑스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래어는 소문자나 필기체보다는 인쇄체의 대문자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문자 쓰기는 크기나 형태에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프랑스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서술로 여겨진다. 대문자는 독자들에게 숫자, 도형과 같이 하나의 특수한 기호로 작용하고,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설계도나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의 회화적인 요소로 보인다. 특히 빈번하게 활용되는 “△, □” 등의 도형적인 부호, 숫자 등의 기호와 함께 쓰인 프랑스어는 하나의 기하학적 기호로 보일 수 있다. 외래어를 모르거나, 더구나 프랑스어를 모르는 독자들이 보기에 도형과 함께 쓰인 프랑스어는 뜻을 해석할 수 없는 언어 밖의 요소로 인식된다. 또한 고딕체의 대문자 표기는 비석의 비문(碑文)이나 선언문의 제목처럼 내용을 대표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여겨지고, 오래전에 인쇄된 금속활자들과 같이 종이위에 쓴 것이기 보다는 돌이나 나무 등에 새겨놓은 철자들처럼 판화적인 느낌을 불러온다.

두 번째로, 프랑스어는 글꼴이나 철자의 배열이 가져오는 타이포그래피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한글이나 한자와 달리 프랑스어 단어를 구성하는 대문자 철자들의 나열은 정상적인 시어 밖의 부호들과 조화를 이루어 상형적인 형상을 구성한다. 예문에서 “sCANDAL”은 커져가는 스캔들을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시의 제목으로 쓰인 “BOITEUX · BOITEUSE”는 프랑스어가 갖는 남성과 여성형을 이용하여 마치 두 남녀를 대치시켜놓은 것처럼 표기된다. 이 시편을 좀 더 읽어 보면, “긴것/ 짧은것/ 열+字/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묻어있다/不得已한平行/物理的으로아팠었다/(以上平面幾何學)”(CP.110)라는 행들이 이어진다. 이 구절은 “평면 기하학”이 의미하는 대로 끝내 만나지 못하는 남녀의 부조화를 그리고 있다. “긴 것”과 “짧은 것”은 긴 다리와 짧은 다리를 뜻하고, 뒤이어 오는 “不得已한平行”이라는 구절은 “서로 결합될 수 없는 남녀의 관계”를 형상화 한 것이다.¹⁶⁾ 프랑스어 제목 “BOITEUX · BOITEUSE”은 “절름발이”로 해석되고,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열+字”는 불안하고 죄스러운 만남으로 해석될

16) 이어령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111.

수 있다. 다른 분석으로는 불완전한 “시인의 나이를 뜻하는 二十二의 기표를 교묘한 언어조작으로 노래한 것”¹⁷⁾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처럼, 이상의 시편에서 활용되는 프랑스어는 수학적 부호, 기하학적 기호들과 복합적으로 용해되어 하나의 그림시(詩畫)를 구성하는 상형적인 시어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프랑스어는 한글 문장의 해체와 병렬적 구성을 불러온다. 예문에서 “△은 나의 AMOUREUSES이다”라는 구절은 온전한 문장이기 보다는 기호와 한글, 프랑스어의 철자들을 나열식으로 늘어놓은 것이다. 심표나 마침표를 생략하고, 찍어쓰기를 무시한 한글 단어들은 프랑스어의 철자들과 어울려 병렬적인 시행들을 만들어 낸다.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들과 점이나 선, 네모나 세모 등의 정상적인 시어 밖의 부호들과 혼성되는 단어나 문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글쓰기의 형식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한글의 단어와 문장을 해체한 뒤, 비시어적인 재료들과 문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반문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늘어놓기의 문장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의 제목에서도 빈번하게 구사된다. 「오감도」에서 보여주는 “詩第一號”, “詩第二號” 등의 제목은 “詩第十五號”까지 계속된다. 또한 “第 I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라는 문장은 “第13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라는 문장으로 계속된다. 「삼차각설계도」에서는 같은 제목의 “線에關한覺書I”라는 문장이 “線에關한覺書7”까지 숫자만 바뀌어 연속된다. 문장의 예를 들어보자. “나의아버지가나의결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 · · · · 아버지 가되느냐(…)”(CP.21), “싸움하는사람은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고또싸움하는사람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었기도하니까(…)”(CP.23). 이러한 표현들은 전통적인 글쓰기의 규범을 벗어나 단어와 문장의 나열식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글이나 한자 등의 나열은 프랑스어로 된 단어와 용해되어 문장을 구성한다. 위의 예문에서 “POUDRE VERTUEUSE가複製된것과함께가득채워져있다”라는 문장에서처럼 프랑스어 철자의 나열식병기가 한글이나 한자의 표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글쓰기의 문법적인 틀을 벗어난 문장들의 나열형 구사는 프랑스의 다다이스트들

17) *Ibid.*, p.111.

이나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주창했던 자동기술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¹⁸⁾ 여기서 이상의 시편에 구사되는 프랑스어의 표기는 모국어의 문법을 해체하고, 문장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자유로운 글쓰기의 중심 요소로 여겨진다.

한편, 모국어 대체의 프랑스어 구사는 한글식의 표기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외래어이지만 한글로 쓰인 프랑스어의 기표적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앞의 예문을 보면, “마르세이유의봄을解纜한코티의香水의마지한東洋의 가을/屋上庭園. 猿猴를흉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CP.167), “聖세바스티앙과같이아름다운동생·로오자룩셈블크의木像을담은막내누이”(CP.223) 등의 표기는 한글식의 프랑스어와 한자, 한글이 조화를 이루어 문장을 구성한다. 한글식의 프랑스어 역시 띄어쓰기를 무시한 나열형의 문장으로 구사되고, 마치 프랑스어를 한글처럼 활용하여 발음 되는대로 늘어놓기의 형태를 보여 준다. “마르세이유”, “코티”, “마드무아젤”, “聖세바스티앙”, “로오자룩셈블크” 등의 단어들은 앞뒤의 한자나 한글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한글로 쓰인 프랑스어는 단어가 갖는 발음상의 효과와 함께 문장상의 조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예들을 보면, “크리스트에酷似한한檻樓한사나이가있으니”(CP.92), “아아르·카아보네는橄欖山을산채로拉撮해갔다.”(CP.118), “카아보네가프렛상으로보내어준프록·코오트를基督은最後까지拒絕하고야 말았다”(CP.120), “太陽은理由도없이사보타아지를恣行하고있는것은全然事件以外的일이아니면아니된다.”(CP.124), “초콜레이트는黑檀의사아벨을질질끌면서”(CP.135), “여자는오오라를본다”(CP.136), “聖세바스티앙과같이아름다운동생”(CP.223), “네愛人을불러줍세아드레스도알고있는데”(CP.232) 등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크리스트”는 “Christ”, “아아르·카아보네”는 “Al Capone”, “카아보네가프렛상”은 “présent”, “사보타아지”는 “sabotage”, “사아벨”은 “sabre”, “오오라”는 “aurora”, “聖세바스티앙”은 “Sebastianus”, “아드레스”

18)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서울, 나무이야기, 2009, p.156 참조. “우리 문학 사상 최초로 이성과 의지를 무시한 자동기술법, 숫자와 기하학 기호의 삽입, 난해한 한자와 일어의 사용, 띄어쓰기의 무시 등을 감행한 시들을 선보여 기성 문인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준바 있다.”

참고, 『이상 시의 외래어와 한글 혼용이 보여주는 자동기술법 비교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39집, 2015 참조.

는 “adresse” 등의 프랑스어와 영어 단어들은 발음에 따라 한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상의 시편에서 이러한 한글식 표기의 프랑스어는 한자, 일본어, 그 외 여러 기호들과 조화를 이루는 중심적인 외래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인의 시편들에서 한글식 표기의 프랑스어는 그 기능과 형태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뚜렷한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프랑스어의 한글식 표기는 외래어의 모국어화이다. 한글로 표기된 프랑스어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도 그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다. 프랑스어의 알파벳을 한글의 자모음으로 치환시킨 단어나 문장은 마치 프랑스어를 한글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착각을 불러온다. 특징적인 것은 한글로 된 문장들이 띄어쓰기 등의 문법적 틀을 이탈한 것처럼, 한글로 표기한 프랑스어도 의도적으로 문법의 규범을 벗어나게 쓴다. 그리고 원어로 쓰인 프랑스어 단어들과는 달리 한글식 표기는 독자들이 읽기에 거부감이 들지 않고, 한글로도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둘째, 한글식의 프랑스어는 한글 단어들과 조화를 이루어 청각적인 이음 현상을 이룬다. 같은 단어나 문장의 반복과 중복적인 표현 속에 용해되어 프랑스어 단어들도 모국어와 어우러진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읽을 수 있다. 프랑스어를 모르는 독자들도 뜻을 음미하기 전에 한글로 된 구절들의 음운을 소리 내어 읽으며 막연하게나마 단어와 문장의 음가를 음미해 볼 수 있고, 한글식 표기는 시인이 구사하는 수학적 부호나 도형과는 달리 정상적인 시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리고 원어의 알파벳 철자들과는 달리 한글로 쓰인 프랑스어는 우리말과 혼용되어 읽혀질 수 있으며, 그 소리는 청각상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셋째, 프랑스어의 한글식 표기는 자생적인 발음을 보여준다. 시인이 표기한 한글식 어휘는 프랑스어의 정확한 발음이기보다는 시인 자신이 체화한 발음을 적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예문의 단어들 중에 “마드무아젤”은 “마드모아젤”, “프렛상”은 “프레장”, “사보타아지”는 “사보타아쥬”, “사아벨”은 “사브르” 등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자생적 발음의 표기는 영어의 한글식 표기에도 자주 적용된다. “답답하게 걸어가는길이내스토오리요”(CP.63) “貨幣의스캔달”(CP.65), “초콜레이트는黑檀의사아벨을질질펼면서”(CP.135), “여자는꽃노래와같은ADIEU를地圖의에레베에슌에다뜨하고”(CP.136) 등의 예문

을 보자. 문장 속에서, 각기 “스토오리요”는 스토리, “스캔달”은 스캔들, “초콜레이트”는 초콜릿, “에레베이션”은 엘레베이션 등의 영어 발음을 시인 고유의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아아르·카아보네”의 “르”의 표기는 최대한 프랑스어의 발음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시인은 한글의 체계에 맞게 프랑스어를 응용하여 시칭각상의 동질성을 가져오는 친화적인 시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인에게 프랑스어의 한글식 표기는 서구 언어에 대한 모방의 차원을 넘어 자생적인 단어와 문장의 생산으로 나타나며, 그 문장들은 정형적인 문법과 전통적인 시어의 범주를 이탈한 신문체의 창안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원어의 이탤릭체와 한글식으로 쓰인 초감각의 프랑스어는 두 가지 측면의 그 기능을 엿볼 수 있다. 하나는 건축, 물리, 수학과 같은 물질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정신, 사상과 같은 정신적인 세계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어로 그려지는 서구의 도시 문명, 종교, 인명과 지명 등은 현대화된 물질문명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AU MAGASIN DE NOUVEAUTES”(新奇性的 百貨店) 등의 프랑스어가 나타내는 현대물리학이나 건축학적인 이미지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서구의 과학자들의 이론을 작품에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상이 구사하는 프랑스어는 서구의 새로운 예술과 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시편에 융해시키기 위한 시어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주현은 이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 외국어 공부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 五個國語에 能通 하겠 다거나 七個國語 云云한 것은 그러한 바람을 보여준다. 여러 국어에 대한 관심은 결국 다양한 독서에 대한 욕구이며, 새로운 학문을 흡수하고픈 욕망에서 비롯하였다.”¹⁹⁾ 즉, 이상에게 프랑스어는 “정신의 공동”(空洞)에서 벗어나 사상적으로 무장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와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무기이며, 나아가 다다나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제시한 “자유와 상상력”을 구사하기 위한 해방의 시어로 활용된다. 고은에 따르면 “어떤 사이비, 어떤 허위, 어떤 기만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와 상상력의 모퉁이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문학, 그가 그의 수첩이나

19) 김주현, 『실함과 해체』, 서울, 지식산업사, 2014, p.526.

백지에 낙서하고 그가 곧잘 남용하는 ESQUISSE라는 단어로 설명 할 수 있는 그의 업적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유가 필요하다.”²⁰⁾ 말하자면, 이상이 구사하는 “어느 ESQUISSE”(CP.181)를 비롯한 프랑스어는 억눌린 식민지 시대의 지엽적인 언어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한글, 한자, 일어권에 속해있던 지역적인 시어의 영역을 서구의 언어로까지 확장시켜 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장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그 빈도수로 볼 때, 시인이 구사하는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는 단순히 유희적인 시어가 아닌 자유 정신과 상상력을 그려내기 위한 이상(李箱) 고유의 필수적인 자산이며, “고도로 발달된 지적 생활에서 솟아나는 필지(必至)의 소산”²¹⁾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는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상형적 이미지나 지적이며 과학적인 이미지, 이국의 도시와 인물, 종교적인 이미지 등을 그리는 초감각의 시어로 간주된다.

3. 의미 생성과 파생의 시어

이상의 시편들에서 모국어를 대체하여 이국의 문명과 지적인 문물을 그리는 초감각의 프랑스어가 보여주는 기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시인은 프랑스어 단어들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여인의 이미지, 사랑의 관계, 자유의식,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은유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상에게 프랑스어는 자주 쓰이는 “ESQUISSE”나 “AMOUREUSE”가 보여주는 것처럼, 단순히 기표상의 유희적인 단어가 아니라 뜻을 숨기거나 강조하기 위한 암호화된 시어이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와 기호들의 활용은 모국어 중심의 단어와 문장을 해체하여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뜻을 불러오는 의미생성과 파생의 시어로 작용한다.

20) 고은, 『이상평전』, 서울, 향연사, 2003, p.124.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역락, 2006, p.378 참조. “식민지 시대 상황 속에서 서구와 일본의 근대적 수준을 따라잡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당대 세계 지성의 최고 전위적인 수준에 대한 문화적 시적 반향을 보여준 이러한 이상의 사유와 상상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1) 최재서, 『李箱문학전집 4-연구논문』, 김윤식 편저, 서울, 문학사상사, 1996, p.12.

그렇다면 초감각의 시어로써 프랑스어가 갖는 기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석해보자.

첫째, 프랑스어는 여인을 비롯한 타인과의 애증 관계를 그리는 의미소로 적용된다. 시인이 빈번하게 구사하는 프랑스어 표기 중에 하나인 “AMOUREUSE”라는 어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가장 중요한 은유적 표현 중에 하나이다. 이 단어는 “破片의 景致”(CP.100), “▽의 遊戲”(CP.103), “神經質的으로肥滿한 三角形”(CP.121), “線에關한覺書”(CP.164) 등의 시편에서 수시로 활용된다. “아무르즈”로 발음되는 이 말은 “아내, 연인, 사랑하는 사람, 그대, 사랑” 등으로 해석된다.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도 쓰인 이 단어는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한사람의 여인, 혹은 다수의 여인들을 프랑스어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인에게 “AMOUREUSE”라는 프랑스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상징적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AMOUREUSE”는 “△ ▽ □” 등과 같은 도형적인 부호들과 융화되어 뜻을 담고 있는 코드화된 시어이다. “AMOUREUSE”는 특히 “△”과 쌍을 이루어 빈번하게 활용되며, “△, 연인, AMOUREUSE”, 이 세 단어는 등가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예문에서, “AMOUREUSE”는 도형적인 부호인 “△”과 함께 연인이나 아내를 함축화한 시어, 즉 시인에게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표상하는 시어로 적용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시인의 심리적 변화는 “△, ▽, □”간의 긴장 상태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다. “□ 나의 이름/ △ 나의아내의이름(이미오래된過去에있어서의나의 AMOUREUSE는 이와같이도聰明하리라)”(CP.164)에서 “□”와 “△”의 이미지는 남과 여의 관계를 형상화 한 것이다. “나의 아내의 이름”인 “△”와 “AMOUREUSE”는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젊었을 때의 “총명(聰明)”한 여인을 가리키는 “AMOUREUSE”는 좀 더 순수하고, 순정적인 처녀적의 여인을 뜻한다. 외양과 심성이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은 “△”의 형태에 비유되어 그리지고 있으며, 사랑스러웠던 아내의 예전 이미지는 “AMOUREUSE”라는 프랑스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AMOUREUSE”는 “△”, “▽” 등의 도형적인 이미지에 비유되어 추상적인 시어로 그려진다. 시편 “破片의 景致”에서 시인은 “△은 나의 AMOUREUSE이다. /(...) / ▽이여! 나는괴롭다(...) / 마침내▽을埋葬한雪霜이었다”(CP.100)라는 문장으로 “△”와 “▽”를 대비시켜놓고 있다. 여기서

“▽”는 “괴로운 나”, 즉 시인을 가리킨다. 사랑스러웠던 여인이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지우고, 추운 날의 “설경(雪景)”속에 자신을 “매장(埋葬)”시킨다. “▽은 △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며 마침내 그러한 자아를 매장한다.”²²⁾ 이 시편에서 “△은 나의 AMOUREUSE이다”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를 그리는 것이며, 그 여인의 상징적 부호가 “△”이고, 프랑스어를 모르는 독자에게는 “AMOUREUSE”라는 프랑스어 역시 도형과 같이 하나의 암호화된 부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또한, “△”에 비유되는 아내의 모습은 다양한 이미지를 불러온다. 시각적으로 볼 때, “神經質的으로肥滿한三角形”(신경질적으로포만한삼각형)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총명하게, 혹은 비만의 여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어령은 이에 대해 “△은 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으로서 AMOUREUSE는 살찐 사람, 잘 쓰러지지 않는 존재의 의인화로 일상적 세계에 살고 있는 아내”²³⁾로 해석한다. 예문들에서, 시인은 아내, 여인, 사랑스럽고 순수한 사람, 비만한 여인 등의 다의적인 뜻을 가진 어휘로 우리말 대신에 프랑스어 단어와 도형을 활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외양과 애증관계를 그리고 있다.

셋째, 시인은 프랑스어 단어가 갖는 문법적 규범을 이용하여 이성 간의 애정 관계를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어의 모든 명사와 형용사는 남성, 여성, 단수, 복수의 성(性)과 수(數)의 구별을 갖는다. 시인은 프랑스어의 성구별을 응용하여 남성인 자신과 여인사이를 대립시킨다. 여인을 지칭하는 “AMOUREUSE”는 남성명사 “AMOUREUX”와 대비되고, 복수형은 “AMOUREUSES”로 표기된다. 여성형은 단수와 복수형이 같은 음인 “아무르즈”로 발음되고, 남성형은 “아무뢰”로 발음된다. 아무르즈로 발음되는 AMOUREUSE의 어미 “-EUSE”는 여성형 어미로, 남성형 어미 “-EUX”에 대비된다. 같은 형태의 어미로 쓰인 “BOITEUX · BOITEUSE”라는 제목 하에 쓴 “긴것/ 짧은 것/ 열十字/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묻어있었다.”(CP.110)라는 구절을 보자. 여기서 구사된 프랑스어 제목은 “절름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각기 남성형과 여성형의 표기이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남성의 긴 다리와 여성의 짧은 다리가 정상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BOITEUX · BOITEUSE”는 서

22) 이승훈,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102.

23) 이어령,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121.

로 “不得已한平行”을 이룬다는 표현은 남과 여 사이의 갈등이나 불화, 단절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형으로 구분되는 프랑스어 단어의 활용은 이상의 시에서 중심 이미지로 그려지는 나와 아내, 나와 여인과의 대립을 그리는 중요한 표현기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남녀를 나누는 성별구분의 문법적 규범의 응용은 프랑스어 단어가 보여주는 시간적인 대비와 함께 발음상의 청각적인 구별성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표기로 보인다.

넷째, 이상의 시편에서 프랑스어 어휘는 환유적인 시어로 의미 확장을 가져온다. 프랑스어 원어로 쓰인 몇 개의 예들을 해석해보자. “LE URINE/ 憂愁는DICTIONARIE와같이純白하다.(…)矮小한ORGANE을愛撫하면서비인 페이지를넘기는마음은平和로운文弱이다.”(CP.123), “限定없는電話를疲勞하여LIT위에놓고”(CP.124), “POUDRE VERTUEUSE가複製된것과함께가득채워져있다.(…)여자는꽃노래와같은ADIEU를地圖의에레베에순에다告하고NO.1-500의어느寺刹인지向하여걸음을재촉하는 것이다”(CP.136), “여자는大膽하게NU가되었다”(CP.142) 등의 문장에서 프랑스어 단어들은 다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DICTIONARIE”는 DICTIONNAIRE의 오기로 보이며, 원래의 뜻은 “사전”을 지칭한다. 문장에서 이 단어는 “책” 혹은 “사전”으로 해석되고, “감추어진 세계, 열려지지 않은 세계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憂愁를 순수 혹은 순백의 세계로 인식함을 암시 한다.”²⁴⁾ 시편의 제목으로 쓰인 “LE URINE”는 “오줌”으로 옮겨지고, “矮小한ORGANE”은 신체의 “기관”으로 문장 속에서는 오줌을 누며 자신의 왜소한 성기를 만지는 열등적인 이미지를 불러온다. 신범순의 해석에 따르면, “거대한 동토를 녹이기에 형편 없이 왜소한 성기로 오줌을 누는 장면을 이 시는 그렸다. 그 오줌의 뜨거운 물줄기가 얼어붙은 지상에 흘러내리며 꿈틀거리는 환상적인 풍경을 그린 것이다.”²⁵⁾ 이어서 “LIT위에놓고”는 피로함을 견디지 못하고 “침대”위에 누워서 전화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POUDRE VERTUEUSE”는 “고결한 분가루”로 문장 속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허위로 치장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ADIEU”는 “안녕”, “영원히”로 쓰이는 작별인사의 어휘이다. “NU”는 “나체”의 뜻으로, 여자가 좀 더 대담하게 부끄러움 없이 매음 행위를

24) 이승훈,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125.

25)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역락, 2006, p.396.

보여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AU MAGASIN DE NOUVEAUTES”(CP.167), “_어느ESQUISSE”(CP.181), “NO.NO.3.MADAME”(CP.203) 등의 예문을 보면, 각각의 프랑스어는 “새로움으로 꾸며진 백화점에서”, “초벌의 그림, 또는 초벌의 원고”, “부인” 등으로 번역된다. 예문들에 쓰인 프랑스어 단어는 한글을 대체하여 뜻이 약화되거나 단순화되는 것을 피하고, 내면의 심리적 갈등이나 타인과의 관계, 사물의 이미지와 풍경을 그리는 파생의 시어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의미의 생성과 파생적 기능은 한글식 프랑스어 구사에서도 적용된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을 해석해보자. “아아르 · 카아보네는橄欖山을산채로拉撮해갔다.”(CP.118), “카아보네가프렛상으로보내어준프록 · 코오를基督은最後까지拒絕하고말았다”(CP.120)라는 표현에서 “아아르 · 카아보네”는 미국을 주름잡던 갱의 이름 Al Capone의 프랑스어식 발음의 표기이다. 문장의 뜻은 폭력적인 카포네가 기독교정신을 파괴하고 삼켰다는 뜻을 암시한다. “감람산”은 예수가 자주 기도를 올렸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쪽의 산이고, “산채로”는 산(山)채로, 혹은 살아 있는 채로의 뜻을 암시하며, “남촬”(拉撮)은 남치를 뜻한다. 말하자면 “아아르 · 카아보네”라는 프랑스어식 발음의 단어는 “기독교와 카포네로 표상되는 정의와 불법, 선과 악의 대립, 기독교의 정의마저 사라짐을 풍자”²⁶⁾하는 환유적 어휘로 쓰이고 있다. 그 다음의 프랑스어 “프렛상”은 “선물”을 말하고, 영어 “프록 · 코트”(Frock Coat)는 남성용 예복을 뜻한다. 문장의 해석은 악의 상징인 “카아보네”가 보낸 호의적 선물, 즉 불법을 거절하는 기독교 정신을 그리고 있다. 또한 “太陽은理由도없이사보타아지름”(CP.124) “마르세이유의봄을解纜한코티의香水의마지한東洋의가을/屋上庭園猿猴를흉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CP.167), “聖제바스티앙과같이아름다운동생 · 로오자룩셈블크”(CP.223), “네愛人을블러쉴세아드레스도알고있는데”(CP.232) 라는 구절에서 “사보타지”는 “노동자들의 파업”, 프랑스 남부 지중해변의 도시 “마르세이유”, “마드무아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 “성인 세바스찬”, 아드레스는 “주소” 등으로 해석된다.

예문들에서처럼 프랑스어 단어는 숨기고 싶은 열등의식, 여인이나 가족

26) 이승훈,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119.

과의 애정관계, 지적이며 도시적인 사물의 이미지, 이국적인 풍경, 사람의 이름, 건축 등의 형상을 함축한 시어로 응용된다. 그리고 시인에게 프랑스어는 뜻을 강조하거나 숨기기 위한 의미소로 활용되고, 모국어 중심의 단어와 문장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의미의 생성과 확장을 불러오는 포스트모던한 시어로 적용된다. 즉 시인은 “건축과 디자인, 현대 물리학을 접하면서 자신이 느낀 지적 감응을 통해 기존의 수사법이나 이미지 표현 등 일련의 시학적 규범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양식의 글쓰기를 시도한다.”²⁷⁾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는 모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국의 사물을 그리는 시어으로써, 시인의 내면에 잠재된 사상과 과학적인 지식, 예술적인 미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초감각적인 파생의 시어로 응용된다.

4. 나가는 말

1936년 이상(李箱)은 “作家的 呼訴”라는 제목 하에 조선의 문단현실에 대해 설파한다. “그러나 이 郷土는 郷土이기 때문인 理由만으로 해서 草根木皮로 목숨을 잇는 너무도 끔찍끔찍히 많은 성가신 食口를 가졌다.”²⁸⁾ 시인이 말하는 “향토”(郷土), 즉 식민지 조선은 가난하고, 무지하며, 시인은 부양해야 하는 식구를 거느리고 있다. 협소하고 억눌려 있는 문단의 현실은 곧 조국의 현실이며, 조선이라는 지방에 갇혀 있던 암울한 시대의 상황이다. 아울러 향토는 부자유한 의식에 갇혀 있는 시인 자신의 자폐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시인은 “성천기행”에서 자신의 정신과 육신을 “근심이 호수처럼 스며드는 폐허”(廢墟)로 그리며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밤의 슬픈 空氣를 原稿紙 위에 깔고 蒼白한 동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속에는 自身の 訃告도 同封하여 있습니다.”²⁹⁾ 서신은 이상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인 불안과 절망감을 담고 있으며, 조국과 문단, 시인개인이 처한 열패적인 심리 상태

27) 송지윤, 「이상과 거트루드 스타인의 모더니즘적 욕망」, 『동서비교문화저널』 29호, 2013, p.172.

28) 이상, 『李箱문학전집 3-수필』, 김윤식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p.249.

29) *Ibid*, p.112.

를 보여주고 있다.³⁰⁾

그렇다면 시인이 살고 있는 모국이라는 향토, 조선이라는 지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인이 성천으로 가며 읽었던 아폴리네르의 “에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 즉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서구문명의 신경향을 이 땅에 이식시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조선과 경성을 벗어나고, 식민지의 문단언어를 벗어나는 것으로 구현된다. 또한 이상의 시편에 구사되는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와 기호들은 모국어에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서구의 신문학과 신예술을 한국시단에 축성시켜 놓은 탈 향토의 시어들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가 분석한 초감각의 프랑스어는 한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국적인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자생적이고 숙성된 이상 고유의 시적 자산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는 다 음과 같은 특징적 기능으로 탈 지방성을 실현하는 시어으로써 귀결될 수 있다.

첫째, 이상의 시편에서 기표상의 프랑스어는 알파벳 철자와 한글식의 표기로 나누어지고, 어휘 본래의 철자로 쓰인 단어와 문장은 고딕적이며, 시 창작적으로 병렬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프랑스어 단어들은 “□, △, ▽” 등의 기호들과 조화를 이루어 타이포그래피적인 상형문자의 형상으로 기술된다. 아울러 이상의 시편에 고유적으로 나타나는 문법의 규범을 이탈한 병렬적 표현기법은 단어의 해체와 재조합을 불러오고, 이때 프랑스어는 한글이나 한자를 대체하여 문장을 재구성한다. 나아가 시인이 구사하는 프랑스어는 모국어를 대체하여 추상적이고 미학적인 문장을 구현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말하자면, “이상은 미문(美文)을 쓰기로 목적했다. 그러나 모국어로는 되지 않았다.”³¹⁾ 그리고 이상의 시편에 미문을 불러오는 프랑스어는 한국근대의 시문학에서 전통적으로 모국어에 갖는 시어의 한계를 초극하고, 신문체의 창안을 불러오는 핵심적인 외래어로 기능한다.

둘째, 초감각의 프랑스어는 물리학, 수학, 건축학의 기호와 조화를 이루어 이국의 신문명과 새로운 사상을 그리기 위한 의미생성과 파생의 시어로 활

30) 조해옥, 『이상 산문 연구』, 서울, 서정시학, 2009, p.47 참조. 이상의 서신은 “육체적 질병과 도화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근심이 성천의 풍요로움과 건강함”에 대비되고 있다.

31) 김윤식, 『이상의 글쓰기론』, 서울, 역락, 2010, p.192.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나의 AMOUREUSE이다”, “AU MAGASIN DE NOUVEAUTES”(新奇性的 百貨店) 등의 문장에서 구사되는 프랑스어는 기하학적인 도형이나 수학의 부호들과 용해되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의미 확장의 기능을 보여준다. 이상의 시편에서 프랑스어는 이국의 도시, 종교, 과학적 지식과 같은 고도로 발달된 지성과 예술성을 그리는 문명적이고 지적인 시어로 쓰이고 있다.

셋째, 이상에게 모국어 대체의 초감각의 프랑스어는 서구의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추구했던 무한한 자유와 상상력의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시어로 활용된다.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앙드레 브르통은 “사랑하는 상상력이여, 내가 특히 네게서 사랑하는 것은 네가 용서를 모른다는 바로 그 점이다. 자유라는 어휘만이 아직도 나를 격동시키는 전부이다.”³²⁾라고 말한다.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그리고자 했던 초현실주의자들은 “언어란 초현실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어졌다.”³³⁾라고 강조한다. 이상은 식민지시대의 지방어인 모국어로는 자신이 꿈꾸고 그려내고자 했던 초감각적인 사물을 그려낼 수 없었다. 말하자면, 시인이 자주 썼던 “ESQUISSE” 등의 프랑스어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열등의식을 초월하고, 솟아나는 예술적 충동을 그리기 위한 자유와 상상력의 시어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이상의 시편에서 프랑스어를 비롯한 모국어 밖의 외래어와 기호의 활용은 서구의 모더니즘을 넘어 조선의 시문학에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글쓰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천으로 여길 수 있다. 특히 프랑스어 활용이 야기하는 문장의 해체와 재구성은 서구의 현대예술의 신경향이 보여준 전위적인 표현기법을 보여준다. 김주현은 이러한 이상의 시어에 대해 해체와 조합의 언어 실험으로 설명한다. “이상의 시는 근대 서정시의 계보와 대척적인 면에서 다다·초현실주의, 모더니즘의 계보를 형성한다. 그는 언어 미술사로서 다양한 기호와 언어 실험을 감행하여 언어의 궁극을 실현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해체하고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

32) André. Breton, *Manifestes du Surréalisme*, Paris, Gallimard, 1983, p.12. “Chère imagination, ce que j'aime surtout en toi, c'est que tu ne pardonnes pas. Le seul mot de liberté est tout ce qui m'exalte encore.”

33) *Ibid*, p.46. “Le langage a été donné à l'homme pour qu'il en fasse un usage surréaliste.”

다. 그의 문학 세계는 기표와 기의를 해체하고 상호 텍스트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해체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띠고 있다.”³⁴⁾ 그리고 시인에게 프랑스어 활용이 불러오는 해체와 재구성의 신문체적인 특성은 근대 한국문단의 모더니즘에 반성적인 시어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은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사의 정통적 문맥은 이상들의 모더니즘이 붙들지 못하고 항상 이상계의 모더니즘이 오히려 그 문맥에 대한 반성 형식으로 나타나는 국어 문화의 탈영역성을 드러낸 것이다.”³⁵⁾

결과적으로 이상의 시편에 나타나는 프랑스어는 다른 외래어나 비 시어적인 기호들과 융해되어 자유와 상상력을 표현하고, 한글로는 그 뜻을 온전히 살릴 수 없는 지적이고 진보적인 이국의 문명을 그리는 포스트모던의 시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이 성천으로 가며 읽었던 “세르뵘”, “아폴리네르”, “에스프리 누보” 등의 전위문학과 전위예술에 대한 동경은 조선이라는 “향토”가 주는 심리적 열패감과 “권태”(倦怠)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해방구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시인의 서구 문명과 전위예술에 대한 높은 지향 의지에 견주어 볼 때, 이상의 시편들에 활용되는 프랑스어는 모국어가 주는 지엽적인 지방성을 초극하여 “현대라는 기관차”의 신경향을 한국의 근대문학 속에 구현한 탈영역의 상징적 시어로 볼 수 있다.

34) 김주현, 『실험과 해체』, 서울, 지식산업사, 2014, p.449.

35) 고은, 『이상평전』, 서울, 향연사, 2003, p.274.

■ 참고문헌

- 권영민, 『오감도의 탄생』, 서울, 태학사, 2014.
- 고은, 『이상 평전』, 서울, 향연사, 2003.
- 김윤식, 『이상의 글쓰기론』, 서울, 역락, 2010.
- 김윤식, 『이상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김옥순, 『이상 문학과 은유』, 서울, 채륜, 2010.
- 김주현, 『실험과 해체』, 서울, 지식산업사, 2014
-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역락, 2006.
- 이상, 『李箱문학전집 1-시』,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이상, 『李箱문학전집 2-소설』, 김윤식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이상, 『李箱문학전집 3-수필』, 김윤식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_____, 『李箱문학전집 4-연구논문』, 김윤식 편저, 서울, 문학사상사, 1996.
- 이상문학회 편, 『이상시 작품론』, 서울, 역락, 2009.
- 이상, 『이상 소설 전집』, 권영민 편집, 서울, 민음사, 2012.
- 이승훈, 『이상』, 건국대 출판부, 서울, 1997.
- 이병수, 「아폴리네르, 폴 엘뤼아르, 이상 시의 상형적 시어 비교분석」, 『비교문화연구』 제45집, 2016.
- 이병수, 「이상 시의 외래어와 한글 혼용이 보여주는 자동기술법 비교연구」, 『비교문화연구』, 제39집, 2015.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서울, 나무이야기, 2009.
- 조해옥, 『이상 산문 연구』. 서울, 서정시학. 2009.
- 황현산, 『얼굴 없는 희망』,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 André Breton, *Manifestes du Surréalisme*, Paris, Gallimard, 1983.
- Claude Abastado, *Introduction au surréalisme*, Paris, Bordas, 1986.
- Ferdinand Alquié, *Philosophie du Surréalisme*, Paris, Flammarion champs, 1977.
- Julia Kristeva,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Paris, Editions du Seuil, 1985.
- Marcel Raymond, *De Baudelaire au surréalisme*, Paris, Librairie José Corti, 1985.
- Maurice Nadeau, *Histoire du surréalisme*, Paris, Seuil, 1970.
- Roland Barthes, *Le degré zéro de l'écriture*, Paris, Editions du seuil, 1972.

❖ ABSTRACT

A study of the Implications of French vocabularies
and the de-locality in LEE Sang's Poems

Lee, Byung-soo

This following research is a study on the use of French and de-locality in the modern Korean poet Lee Sang's poetry (1910-1937). His hometown was Kyung Sung, Seoul. He mainly wrote his works in Korean, Chinese character, and Japanese, using the language of education and his native language at that time. So then, what was the spirit that he wanted to embody through use of French words?

By using words like "ESQUISSE", "AMOUREUSE", Sang's French was not a one-time use of foreign words intended to amuse, but to him the words were as meticulously woven as his intentions. French words were harmonized with other non-poetic symbols such as "□, △, ▽", and described as a type of typographical hieroglyphics. Instead of his mother-tongue language, French was applied as a surrealistic vocabulary that implemented the moral of infinite freedom and imagination, and expressed something new or extrasensory. Subsequently, the de-localized French (words) in his poetry can be seen as poetic words to implement a "new spirit", proposed by western avant-garde artists. Analysis of French in his poetry, showed a sense of yearning for the scientific civilization, calling for his sense of defeat and escape from the colonized inferior native land. Most of all, comparing his pursuit of western civilization and avant-garde art to French used in his poetry, is regarded as world-oriented poetry intended to implement the new tendency of the "the locomotive of modernity," transcending the territory of the native country.

Key Words : Lee Sang, delocalisation, local, new spirit, French, neurotropism

24 비교문화연구 제53집(2018.12)

■ 논문접수일 : 2018. 11. 10

■ 심사완료일 : 2018. 11. 30

■ 게재확정일 : 2018. 12. 12